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모두 발언

2026.6.23.(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1)신뢰·2)주주보호·3)혁신·4)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무제한의 신고 포상금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50조 국민성장펀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토큰증권(STO) 제도화, 영문공시 확대 등
투자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뒷받침 할 하드웨어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블록체인 중심의 디지털 혁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는 단순한 후선 업무(Back-Office)가 아니라 투자자의 경험을 바꾸고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토큰증권(STO)의 도입은 투자자들이 겪어 온 유동성 제약, 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블록체인은 거래와 결제의 경계를 축소하고, AI는 투자 판단과 자산관리를 자동화하는 등 투자자와 시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2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민·관·학의 역량을 집결하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설계하겠습니다.**

먼저, 결제주기 단축(T+1일)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거래소·예탁원·금투협 등에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9월 애프터마켓 신설을 시작으로
'27년 말을 목표로 매매시스템 전면 개편과
프리마켓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전산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시장이 실시간화되고, 투자 대상과 전략이 다양해짐에 따라
AI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의 상품 개발·판매·사무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시장 데이터와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초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투자 에이전트는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고 확산하여 업계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적 걸림돌도 속도감 있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합니다.

코스콤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전산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확산과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오늘 논의한 과제들은 파편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AI 전환 등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라는 최근의 흐름과 결합되면, 자본시장 인프라는 새로운 단계로 통합·발전하게 됩니다.

주식·채권·펀드·부동산·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 24시간 끊임없이 거래되고,
자산의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AI를 활용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시장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술·제도적 제약 극복, 사람들의 관행과 인식 개선 등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점점 회의를 통해 현안 과제부터 차근차근 다뤄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큰 변화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방향성이 같은 해법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자연스럽게 미래 자본시장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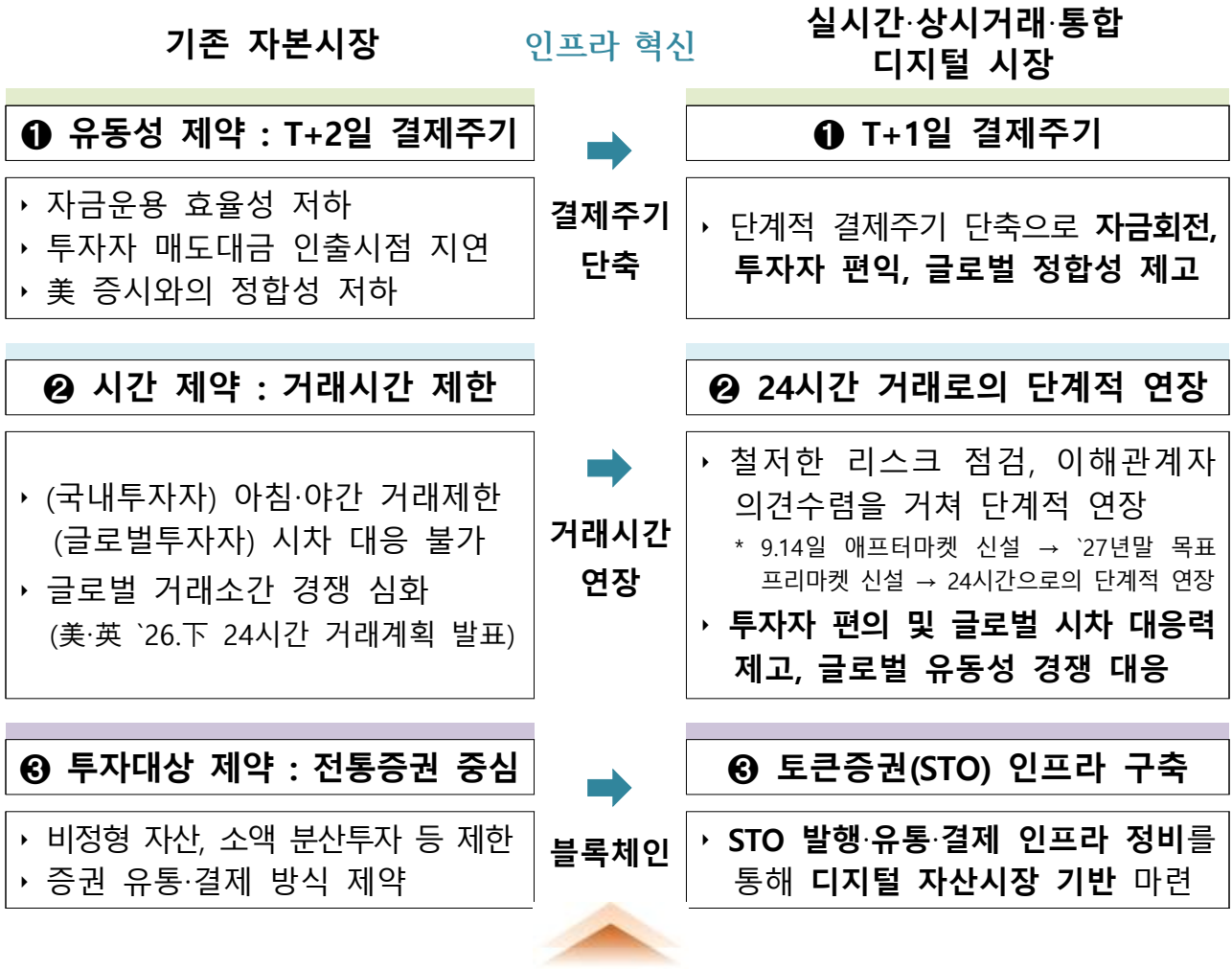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 회의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논의와 혁신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며,
참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한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의 대전환

- 유동성·시간·투자대상의 3대 제약 해소 및 AI 시스템의 뒷받침 -

◆ (인프라 혁신) 투자자 3대 제약(유동성 제약, 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해소하고,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



◆ (Agentic AI[※]) 투자 판단과 자산관리 자동화, 새로운 리스크·취약점 보완

※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AI

① 금융산업	② 투자지원	③ 시장감시	④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가설 수립·검증 등 쿼트 전략, 구조화 상품 개발 고도화 ▸ 상품 개발시 글로벌규제 실시간 동기화 등 컴플라이언스 강화 ▸ 방대한 공시·시장정보 분석 및 AI 상호검증을 통한 리서치 보고서 생산성·완성도 제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목표·성향에 맞는 상품 탐색·분석·실행 대행 등 - 소액투자자도 전문가 수준의 포트폴리오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간 연장 환경에서 시세 조종·이상거래 패턴 등 불공정 거래 조기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금 자동 산출·조정, 결제실패 예측 등 T+1일 청산결제리스크 선제 대응 ▸ 실시간 포지션·신용·유동성 리스크 등 자동 모니터링 등 - 임계치 초과시, 즉시 헤지 청산 등 자동 실행